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총평 • 해설

상상국어평가연구소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총평

- 2026. 6. 4. 상상국어평가연구소

01 출제 경향 및 난이도

"1. 독서와 문학 난도 하락, 선택 과목 평이. 2. 예상외의 작품 선정 3. EBS 연계율 유지. 4. 중상 수준의 문항이 등급 결정. 5. 정답과 오답 선지의 변별도 명확"

올해 6모는 작년 수능에 비해 많이 쉽고, 작년 6모와 비슷한 난도를 보였다. 독서의 경우 신분제와 민권 해방 운동, 정보 비대칭 문제, 액체의 표면 장력과 관련된 수식 등 친숙한 제재를 다루어 세 지문 모두 평이했다. 문학도 갈래 복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난한 수준이었고, 예상과는 달리 중요도가 높지 않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공통 과목의 문항들은 대부분 오답 선지들의 정오 판단이 명확하여 소거법으로 풀거나, 정답 선지 자체의 정오 판단이 명확하여 정답을 고르는 데 무리가 없었다. 선택 과목은 화작과 언매 모두 평이한 수준이었다. 화작에 일부 까다로운 문항이 있었고, 언어는 예년에 비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어 선택 과목의 난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등급컷은 화작 96~97, 언매 94~95(원점수, 1컷 기준)점으로 예상된다.

02 영역별 분석

독서

작년 수능에 비해 확실히 쉽게 출제되었다. 독서론을 포함해 4세트가 모두 연계 출제되었으며 지문의 난도도 높지 않았다. 지문 분량의 측면에서는 복합 지문이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했고, 다른 분야들도 한 단을 넘지 않아서 정보량이 과하지 않았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가 출제된 어휘 문항과 함께 서술 방식을 물은 문항도 2개라는 점도 난도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읽기 전략 중 SQ3R 독서법을 소개한 독서론(수특 p.9 'SQ3R과 CSQ3R' 연계)은 개념과 단계 파악 중심의 구성으로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3번 <보기>는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험을 제시한 응용 문항으로, 일반 독서 세트에서 종종 출제된 유형이다. 인문 복합(수특 p.38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형평 운동' 연계)의 경우, 연계 지점은 (나)의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어 체감 연계도는 낮겠지만, 신분제와 평등이라는 한정된 주제를 다룬 까닭에 난도는 높지 않았다. 다만 8번 문항은 <보기>의 정보와 지문의 주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지문의 표현을 변형하여 선지를 구성한 점 등으로 인해 정오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수특 p.114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연계)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법 관련 제재와 접목한 형태로 출제되었다. EBS 교재의 내용은 도입부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정부 개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9모와 연계 방식이 유사하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 지능,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것이 주목할 만하다. 13번 문항의 경우 독립적인 두 가지 사례를 다루고 있으나, 각 사례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정답 선지의 정오 판단이 분명해서 그리 어렵지 않았다. 과학(수특 p.31 '페포의 표면 장력과 계면 활성제' 연계)은 연계율을 대폭 높인 점이 눈에 띈다. 특히 2문단의 경우에는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다. 과학적 원리를 앞서 설명한 후 그것이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수능의 서술 방식과 동일하다. 15번의 경우 ①번 선지가 다소 까다로웠지만, 정답 선지의 판단 근거가 1문단 후반부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16번 <보기> 문항도 지문의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풀 수 있는 정도로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지 않았다.

■ **문학**

문학은 작년 수능보다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EBS 연계 작품으로는 「나룻배 이야기」, 「그 나무」, 「만전춘별사」,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가, 비연계 작품으로는 「나무」, 「노인과 꽃」, 「시름을 꺼내 들어~」가 출제되어 50%의 연계율을 보였다. 「나룻배 이야기」는 출제 부분이 EBS 연계 교재의 수록 부분과 70% 이상 겹쳐, 연계 산문의 경우 연계 정도를 대폭 높이는 최근의 경향을 유지했다. 20번과 21번은 인물의 모습과 심리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문항으로 그 성격이 유사했다. 갈래 복합의 경우 현대시 2편과 현대 수필을 결합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상대적으로 난도를 확보했다. 24번과 26번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고전 소설의 경우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홍길동전」이 제시되었는데, 30번 문항과 같이 교과서 학습 활동 형식의 문항이 이번에도 등장했다. 고전 시가는 평시조, 사설시조를 결합하여 구성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했고, 소재의 기능과 속성을 묻는 34번은 연계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 **화법과 작문**

화작은 어렵지 않았지만, 유형과 선지 표현에 다소 변화를 주어 체감 난도는 낮지 않았다. '초'를 주제로 한 발표인 화법 세트의 경우, 청중의 반응을 묻는 대신 청중의 분석에 관한 문항으로 출제된 37번을 눈여겨볼 만하다. 대화와 건의문으로 구성된 화작 융합 세트의 경우, 39번 문항은 지문 속 대화의 의사소통 양상을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따로 제시하여 유형에 변화를 주었다. 40번 문항은 메모와 각 지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을 것이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를 제재로 한 작문 세트는 지문의 길이는 짧았지만, 45번은 자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 난도가 높은 문항이라 할 수 있다.

■ **언어와 매체**

언어는 지문형(35~36번)에서 '변이음의 상보적 분포'와 '형태소의 이형태', '자동적 교체 및 비자동적 교체'를 다루었는데, '이형태'를 제외하면 그동안 평가원에서 출제된 적이 없어, 배경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독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5번은 사실적 이해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36번은 풀이 시간이 다소 소요될 뿐 단순한 응용 문항이다. 단독형 중 37번은 문장 구조와 문장 성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묻고 있고, 사실상 배경지식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이라 할 수 있다. 38번과 39번은 정답 선지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매체는 2024학년도 6모 이후, 오랜만에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지문이 제시되었다. 다만 '방송 내용과 이를 활용해 제작한 매체 자료', '학생들의 회의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매체 자료'의 4+2 문항 구성은 익숙한 유형이다. 특히 문항들의 평가 요소와 그 구성이 작년 수능과 유사했고, 눈에 띄게 까다로운 문항도 없어 난도는 평이했다.

03 상상국어 모의고사와 6모

올해 6모는 모든 영역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새로운 유형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고, 선지 길이도 짧은 편이었으며, 지문의 제재도 무겁지 않았고, 정답 선지가 비교적 명확했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작년 평가원 시험의 경우 6모가 가장 쉬웠고 9모와 수능(언매 기준 1등급 원점수 85점)으로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올해 또한 불수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소 어려운 시험에 익숙해지면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어도, 쉬운 시험에만 익숙해지면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상상국어와 함께 다양한 난도의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해설

공통 과목 정답

1	①	2	⑤	3	④	4	③	5	②
6	①	7	②	8	⑤	9	④	10	②
11	③	12	⑤	13	⑤	14	⑤	15	④
16	③	17	①	18	①	19	②	20	①
21	③	22	①	23	③	24	⑤	25	④
26	②	27	②	28	③	29	③	30	④
31	⑤	32	⑤	33	⑤	34	④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정답

								35	⑤
36	③	37	⑤	38	③	39	③	40	③
41	⑤	42	④	43	②	44	①	45	④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정답

								35	②
36	③	37	②	38	④	39	①	40	⑤
41	④	42	③	43	⑤	44	⑤	45	②

공통 과목 해설

[1 ~ 3] (독서) 「학습을 위한 읽기와 SQ3R」

1. 세부 내용 파악(정답: ①)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숙고하기'는 글을 읽은 뒤에 자신의 배경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숙고하기'는 읽을 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활동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1문단에 따르면 SQ3R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읽기 전략이다.

③ 1문단에 따르면 '학습을 위한 읽기'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④ 2문단에 따르면 SQ3R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글을 읽는 '읽기'와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는 '재검토하기'의 활동이 포함된다.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관점 바꾸기'는 저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는 태도를 갖게 하여,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2. 핵심 내용 파악(정답: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관점 바꾸기'는 '글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자의 입장이라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글의 순서를 짤 것인지, 어떤 내용 전달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며 읽는 활동'이다. 따라서 글의 내용 중 어떤 것을 글의 첫머리에 배치하면 좋을지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읽는 것이 SQ3R에 추가된 ㉠(새로운 활동)의 예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에는 '숙고하기'가 있다. 이는 '글을 읽은 뒤에 자신의 배경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글을 읽은 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되뇌어 보는 것은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질문하기'는 SQ3R의 읽기 전 활동 중 하나로,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읽기 전에 만든 질문에 대해 글에서 답을 찾아보며 읽는 것은 SQ3R의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훑어보기'는 '제목, 목차, 요약문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SQ3R의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하므로, 글의 목차를 보며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은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 중 하나인 '관점 바꾸기'는 '글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입장에서 글을 분석적으로 읽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의도한 대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읽어 보는 것은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3.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정답: ④)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하기의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하여 읽으면 독자의 능동성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C 그룹에 독자가 질문을 만들어 글을 읽도록 한다면 독자의 능동성은 질문을 제공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A그룹은 훑어보기와 관련된 실험에 참여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SQ3R의 '훑어보기' 활동에서는 제목, 목차, 요약문 등을 훑어보며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② <보기>에 따르면 A그룹은 훑어보는 방법을 배웠고, B그룹은 그렇지 않았다. 3문단에 따르면 훑어보기 과정에서 '독자는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은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질문을 활용하면, 답을 찾으며 읽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선별할 수 있게 된다.'

⑤ 3문단에 따르면 '또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된다.'

[4 ~ 9] (인문) 「조선 시대 노비에 대한 이익의 견해와 민권에 대한 논의」

(연계: 수능특강 독서 38쪽)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정답: ③)

(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실학자 이익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또한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나)도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② (가)는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나)도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가)는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를 서술하였다. 그러나 (나)는 민권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을 서술하지 않았다.

⑤ (가)는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를 서술하지 않았다. 또한 (나)도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지 않았다.

5. 세부 내용 파악(정답: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가 줄어든 것은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는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은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상화한 글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에서는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다. 따라서 지배층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노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것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다.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의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따라서 양반이 노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약자로 여기는 태도를 반영한 것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은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노비의 애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한 것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다.

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은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굳센 의지를 지닌 노비의 행동을 부각하면서도 노비가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다.

6. 생략된 내용 추론(정답: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이익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조명의 대상을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즉 그는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지양했다. 반면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유길준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익)는, ㉯(유길준)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유길준은 무지한 존재인 민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따라서 ㉮는, ㉯가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③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이익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유길준은 민권 신장을 위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는, ㉯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하였다고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④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이익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는, ㉮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한다고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이익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과,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을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했다. 따라서 ㉯는, ㉮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7. 중심 내용 파악(정답: ②)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형평 운동은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또한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면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형평 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한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형평 운동에서는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따라서 형평 운동이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백정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참여한 형평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형평사는 교육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했다. 따라서 형평 운동은 백정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삼았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형평사는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을 펼쳤다. 그런데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형평사는 1935년에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따라서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형평 운동은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며 전개되었다. 즉 불합리한 처우는 일제의 억압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발생하여 일제 강점기에도 이어진 것이다.

8.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정답: ⑤)

<보기>에 따르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오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를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해 행동했다. 그런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이익은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이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일 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는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되지만, (가)의 이익의 주장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김윤식은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즉 김윤식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했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으므로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했다. 따라서 <보기>의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나)의 김윤식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②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박영효는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박영효는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

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려면 노예들을 해방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다. 즉 조선 시대의 노비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는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다. 즉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가)의 조선 시대의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비판했다. 즉 독립 협회는 노예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노예에게도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나)의 독립 협회의 주장은 모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 단어의 의미 파악(정답: ④)

'관심을 두면서'와 '마음을 두고 있다'의 '두다'는 모두 '생각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선지의 '두다'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 속에 놓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선지의 '두다'는 '직책이나 조직, 기구 따위를 설치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선지의 '두다'는 '어떤 사람을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선지의 '두다'는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0 ~ 13] (사회) 「정보 비대칭 문제와 정부 개입」

(연계: 수능특강 독서 114쪽)

10.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정답: ②)

1문단과 2문단에서는 정보 비대칭 상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정부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방식은 사상의 자유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가 사후에 개입하는 방식은 사상의 자유 이론에 대한 비판론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과 결부하여 구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과 2문단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3문단과 4문단에서는 정보 비대칭 상황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1문단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을 뿐, 이를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규명하고 있지 않다.

⑤ 3문단과 4문단에서는 정보 비대칭 상황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지 않다.

11. 세부 내용 이해(정답: ③)

2문단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 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더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거래에 관

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하는데, 예를 들어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따라서 성분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에 해당한다.

12. 중심 내용 파악(정답: ⑤)

3문단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을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을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의 결정은 정부 개입 대신,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은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며, 정부는 사후에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의 ㉠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② 3문단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을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 따르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은 기본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은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결정의 근거이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4문단의 ㉡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이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정보에 비해 허위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13.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정답: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실명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보기>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 중 을은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자신의 주장을 실명으로 게시했고, 이후에는 익명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이에 대해 플랫폼 B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에 따르면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를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기>에서 '갑'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를 플랫폼 A에 게시하였다.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강제되고 있지 않으므로, 갑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로 제재할 수 없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를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보기>에서 '갑'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였지만, '갑'은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이므로 ⓐ로 제재할 수 없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는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실명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보기>에서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은,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이 작성한 글에서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4문단에 따르면 비판론은 허위·왜곡 정보로 인해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보기>에서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허위·왜곡 정보를 법적으로 제재한 결과이다. 따라서 '을'이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4 ~ 17] (과학) 「라플라스 식과 오네소르게 수」

(연계: 수능특강 독서 31쪽)

14. 세부 내용 파악(정답: ⑤)

4문단에 따르면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되며,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잉크가 노즐을 통과한 다음에 방울의 형태를 갖춘다. 그러므로 노즐을 통과하기 전에는 잉크가 방울의 형태를 이룰 수 없으며, 노즐의 역할은 잉크를 분사해 방울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에 액체 방울이 '구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이다.

③ 2문단에 따르면 폐포 '내부의 압력과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들면서 호흡이 일어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폐포를 수축시키는 힘은 '액체층의 표면 장력'이다.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는 이 표면 장력을 낮추어 폐포 확장을 돕는다. 이를 통해 지질은 수축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 중심 내용 파악(정답: ④)

1문단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는 처음의 큰 기포보다 크기가 크므로 반지름 역시 크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의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크기가 작은 액체 방울이 더 크므로, 크기가 작은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이 더 높다. 2문단에 따르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므로, 두 기포가 합쳐질 때 공기는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이동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액체 방울에서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표면 장력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작은 기포와 큰 기포에서는 모두 표면 장력이 작용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공기의 이동은 두 기포 내부의 압력 차이가 발생할 때 일어난다. 따라서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에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두 기포 내부의 압력은 서로 다를 것이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또한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은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처음의 두 기포와 나중에 생성된 기포 모두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세기와 같다.

16.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정답: ③)

5문단에 따르면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다. 또한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을 곱한 값이 클수록 작다. 따라서 <보기>의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을 유지한 채,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이면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잉크의 표면 장력을 곱한 값은 동일하다. 이 경우 오네소르게 수는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보기>에 따르면 구입 직후 두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다. 따라서 빨간색과 파란색 잉크 모두 오네소르게 수가 해당 범위 안에 있었을 것이다.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점도가 커져서 오네소르게 수가 적정 범위보다 커지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보기>에서 두 달 뒤 빨간색 잉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점도가 높아져 오네소르게 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가제를 넣었다면 오네소르게 수는 다시 작아졌을 것이다.

④ <보기>에 따르면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파란색 잉크는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는 구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적정 범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끈적거리는 정도인 점도가 클수록 크다. 만약 파란색 잉크가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하였다면 오네소르게 수는 구입 당시보다 커지게 된다. 그런데 위성 잉크 방울이 생기는 것은 오네소르게 수가 적정 범위보다 작아질 때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정답: ①)

ⓐ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다.'의 의미를 가진 '올라오는'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낸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 그림, 음악 따위로 드러내다.'의 의미를 가진 '나타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의 의미를 가진 '이루어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목적한 곳에 이르다.'의 의미를 가진 '다다른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는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맞춤으로써'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8 ~ 21] (현대 소설)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수능특강 문학 177쪽)

18. 작품의 내용 파악(정답: ①)

윗글에서 순경과 양복쟁이가 마을에 들어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동식이와 수만이가 마을을 떠났다. 이는 그들에게 '영장이 나왔'기 때문이므로,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온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윗글에서 '천달이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윗글에서 모량댁이 세상을 떠날 때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곧장 '두칠이를 목메어 불렀다'는 것을 보면, 모량댁이 두칠이를 만

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④ 윗글에서 마을에 들어온 순경과 양복쟁이가 '아무개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샅을 돌아다'닌 '그런 일'이 있은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마을을 떠나간 것을 보면, 마을에 온 양복쟁이가 집을 물어 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⑤ 윗글에서 모량댁이 세상을 떠난 후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갑분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는 것을 보면, 갑분이가 두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음을 알 수 있다.

19. 소재의 기능 파악(정답: ②)

삼바우는 '순경 한 사람'과 '양복쟁이'가 강가에 온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에 벌어진 일을 떠올린다. 이는 외부인인 순경과 양복쟁이가 마을 젊은이들을 징집하기 위해 찾아온 위기 상황이 ⓐ에도 있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는 외부인으로 인해 마을 젊은이들이 징집되는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함박눈이 마을을 덮'은 현재 겨울의 상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는 순경과 양복쟁이가 찾아와 마을에 징집이라는 위기가 닥쳤던 과거의 시간일 뿐이므로, 중심인물인 삼바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는 삼바우가 순경과 양복쟁이를 태우지 않고 배를 몰아 달아남으로써 '끊어 버'린 대상이다. 삼바우는 마을 젊은이들을 또 징집하러 온 이들을 보며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분노하며, 배를 몰아 ⓑ를 끊고 있다. 이는 적대적 인물들에 대한 반감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가 그들에 대한 반감이 해소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는 삼바우가 순경과 양복쟁이를 태우지 않고 '나룻배'를 몰아 달아남으로써 '끊어 버'린 대상으로, ⓑ를 '끊어 버'린 주체는 외부인이 아니라 중심인물인 삼바우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노력으로 마을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와 '나룻배'는 모두 중심인물인 삼바우의 능동성을 부각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⑤ ⓑ를 '끊어 버'린 주체는 적대적 인물이 아니라 나룻배를 모는 삼바우이다. 또한 이는 ⓐ의 시기가 아니라 현재 일어난 사건이다.

2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정답: ①)

[A]에서 삼바우는 다가오는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를 보며 마을의 젊은이들을 더 이상 데려가게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안 되지, 안 돼!'라고 외친다. 이때 '주먹을 불끈 쥐'고 발을 구르는 모습은 마을의 젊은이들을 징집해 가는 이들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어 신체적 반응으로 표출된 것임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② [A]에서 삼바우의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가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삼바우가 느낀 두려움과 무력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에 따른 신체적 반응이지, 심리적 원인으로 볼 수 없다.

③ [A]에서 삼바우의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가는 것은 상대가 가까워지며 두려움을 느낀 삼바우가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일 뿐,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으로 볼 수 없다.

④ [A]에서 삼바우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은 그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과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간 것은 눈물이 핑 돈 직후에 떠오른 묘안이므로, 눈물의 심리적 원인으로 볼 수 없다.

⑤ [A]에서 삼바우가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그가 떠올린 '희한한 생각'에 '옳지!' 하며 감탄하는 모습과 연결된다. 이는 자신의 묘안을 받아들이고 그 묘안을 실행에 옮기려는 모습일 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응으로 볼 수 없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③)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에서 나타난 '또 누굴 데려갈라고'라는 삼바우 내면의 목소리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징집해 가는 외부인에 대한 강한 원망과 두려움을 드러낸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는 인물 묘사 또한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삼바우의 반응을 보여 준다. 따라서 ㉢에 나타난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보여 줄 뿐, 이를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은 상대를 바라보며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윽! 크게 트림을 했'다는 인물 묘사와 함께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가?'라며 기대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인접하게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식이 끊긴 용팔이에 대한 삼바우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은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강?'이라는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두 눈을 곧장 껌벅거린다'며 상대를 주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라고 표현하여, 멀리서 다가오는 상대를 응시하는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은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이라는 내면의 목소리와 '콧방귀를 팡 뀌어 준다'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 청년을 징집하러 온 자들을 골탕 먹인 후 의기양양해하는 삼바우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은 '흥! 안 되지 안돼.'라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외부인에게 저항한 자기 행위에 대한 확신과 그 이후 닥칠 일에 대한 불안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 ~ 27] (현대시 / 현대 수필)

(가) 김명인, 「그 나무」(연계: 수능특강 문학 106쪽)

(나) 김기택, 「나무」(수능특강 문학 작가 연계)

(다) 정지용, 「노인과 꽃」(수능특강 문학 작가 연계)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정답: ①)
(가)는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 벚꽃'과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 늦된 그 나무'에서 꽃을 피운 '벚꽃' 나무와 '꽃 한 송이'도 피우지 못한 '그 나무'의 상황을 대비하여 '늦된 그 나무'를 향한 화자의 동질감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는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 거칠게 갈라졌던'과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에서 '한겨울'과 '봄'의 상황을 대비하여 겨울을 견디는 나무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다)는 '부끄러움과 건질 수 없는 괴롬으로 수놓은' 청춘의 상황과 그러한 청춘에서 벗어나 '청수하고 고고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상황을 대비하여 '고고'한 '노년의 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에서 공간의 이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그려 내지 않았다. 한편 (나)와 (다)는 공간의 이동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가)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으나,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한편 (나)는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에서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지 않았다. 한편 (다)는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에서 계절의 흐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지 않았다.
④ (가)는 '한 해의 꽃잎을~발견했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등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뿐,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나)는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자리이리라', '꽃과 잎으로~자리이리라' 등에서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을 뿐,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다)는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위하심이오니까.', '빛깔에 취할 수 있음은~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옵니다' 등

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뿐,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에서 '그 나무'가 꽃을 피우는 미래를 전망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나)는 '그 자리에서 겨우내 얼었다가 /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등에서 '나무'가 겪은 상황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을 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다)는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이매'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드러나고 있으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정답: ③)

(나)의 '익어갔으리라'는 '추위'라는 바깥의 힘이 나무의 '수액'에 스며들어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을 뿐,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리는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을 담은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자리이리라'는 '겨울'이라는 시련을 견뎌 낸 뒤 남은 '흔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겨울 추위'를 이겨 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한 채 '거칠게 갈라'진 자국으로 남게 되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② '스며들었으리라'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추위의 난폭한 힘'이 '수액 깊이 맵게' 배어들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④ '이르렀을까'는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이 수많은 '잎과 꽃'들이 '한겨울 추위'를 이겨 낸 결과라는 점을 나타내므로, 시련이 수많은 '잎과 꽃'이라는 성취에 선행되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⑤ '흘러다니고 있다'는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가구'의 '무늬'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무'의 '무늬'에서 물 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이 느껴진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⑤)

<보기>에 따르면 (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가)의 '가난한 소지'는 '저 나무'가 '여름도 지치'고 만 후에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모습에 빗대어 화자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전망을 찾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나)는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을 통해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가는 작품이다. (나)의 '귀기울'임은 '한겨울'에 '뿌리'의 '자양들'이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때 '나무 밖의 거대한 힘'은 '추위의 난폭한 힘'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기울'임이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가)의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황을 떠올리는 것은, '꽃 한 송이'도 피우지 못하는 '그 나무'가 화자로 하여금 '늦깎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헤매고 다'닌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게 했음을 나타내므로,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나)의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한겨울 추위'의 흔적을 간직한 '나무'가 일상의 사물이 되어 화자가 그 표면을 관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가)의 화자가 '늦된 나무'의 '멍울'을 보는 것은, '꽃 한 송이'도 피우지 못했음에도 '꽃철'이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여전히 '멍울'을 매단 '그 나무'를 향한 화자의 연민의 정서를 환기한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나)의 화자가 '나이테'의 '흔적'을 보는 것은, '한겨울' 동안 '나무'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며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힘 및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수액'에 스며든 '추위의 난폭한 힘' 등에 대한 화자의 지각을 드러낸다.

④ <보기>에 따르면 (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가)의 '푸릇한 잎새'는, '이 봄'이 가기 전에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와 바람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나)는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나)의 '푸르고 진한 빛'은 '추위의 난폭한 힘'이 '나무'에게 스며들어 일어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5. 작품의 내용 이해(정답: ④)

(다)의 글쓴이는 '노인'이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다고 하며, '우리'는 '그 꽃'을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글쓴이는 '분방히 끓는 정염'에서 벗어나 '노년의 덕'을 지닌 시기에는 '주검과 꽃을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노경'을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는 시기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다)의 글쓴이는 '꽃이 난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꽃을 보며 즐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노인이 그 상황에 대해 슬퍼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다)의 글쓴이는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보니 '희고 희신 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도소이다'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가꾼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

② (다)의 글쓴이는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다고 하며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글쓴이는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노인은 '쇠년에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의 '정정'함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다.

③ (다)의 글쓴이는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피어날 모습을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의 '한 계절'을 '헛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⑤ (다)의 글쓴이는 '노년'을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하기'가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로 보며 이러한 '덕'을 지닌 '노경'에 있는 노인은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2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정답: ②)

㉡은 화자가 '제자릴 찾지 못해 / 헤매고 다녔던' 시간으로, 이는 화자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시간일 뿐 화자가 '그 나무'에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여느 꽃나무'들이 '한 해의 꽃잎'을 '활짝 피웠다 지운' 시간으로, '여느 꽃나무'들과 달리 '그 나무'는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다.

③ ㉢은 '수액을 찾아'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④ ㉣은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었던 '모든 틈과 통로'가 '딱딱하게 오므'려지는 '겨울'이 끝나고, 다시 '모든 틈과 통로'가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는 생동의 시간이다.

⑤ ㉤은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를 고려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 달리 꽃은 시간이 흘러도 피는 모습과 지는 모습이 반복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꽃'의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의 시간이다.

27.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정답: ②)

ⓐ는 '앞줄 아름드리' 나무로 인해 '늦된 나무'를 '반쯤 숨'게 한 부분으로, '늦된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한편 ⓑ는 '어린 자손이 희희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릴 수 있게 한 '노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오답 풀이]

① ⓐ는 '늦된 나무'가 '반쯤 숨'어 있는 곳일 뿐, 자신의 몸을 감추려는 이유가 아니다. 한편 ⓑ는 '어린 자손이 희희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리는 것이 '여년과 해골을 장식'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언급된 것일 뿐,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이유가 아니다.

③ ⓐ는 '늦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한 자신의 모습을 '반쯤 숨'긴 곳일 뿐,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목적이 아니다. 한편 ⓑ는 '어린 자손이 희희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여년과 해골을 장식'할 만한 일에 해당하는 것일 뿐,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 하는 목적이 아니다.

④ ⓐ는 아직 꽃철을 맞이하지 못한 '늦된 나무'가 '반쯤 숨'어 있는 곳일 뿐, '늦된 나무'의 '꽃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아니다. 한편 ⓑ는 노인의 '여년'을 '장식'할 만한 것으로, 글쓴이는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전

제라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는 '늦된 나무'가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들킨' 것이 '부끄러'워 숨은 곳으로 제시된다. 즉 '늦된 나무'의 부끄러움은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한 상황과 관련된 것일 뿐, ⓐ가 조건이 되어 자각하게 된 것이 아니다. 한편 ⓑ는 '노인'이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 상황에서도 '어린 자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일 뿐, 노인이 ⓑ를 조건으로 하여 자신의 남은 삶을 희생한 것이 아니다.

[28 ~ 31] (고전 소설)

작자 미상, 「홍길동전」(비연계)

28.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정답: ③)

㉠은 맥락상 길동이 '절에 가'서 '모든 중을 결박'하라 명하는 것까지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길동은 자신이 준비해 온 모래를 씹은 뒤,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겠다고 말했을 뿐 실제로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은 맥락상 길동이 '절에 가'서 '모든 중을 결박'하라 명하는 것까지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길동이 절에 도착하여 승려들을 '일제히 모이'라고 분부하자 승려들은 길동의 속내를 모른 채 '상하노소 없이 다 절 뒤 시내'에 앉았으므로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맥락상 길동이 '절에 가'서 '모든 중을 결박'하라 명하는 것까지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길동은 승려들과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었으므로 ㉠에는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맥락상 길동이 거느린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그 안의 재물을 훔쳐 간 일을 의미한다. 도적들은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었으므로, ㉡에는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친 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은 맥락상 길동이 거느린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그 안의 재물을 훔쳐 갔던 일을 의미한다. 도적들은 절에 있는 재물을 '제 집 재물같이 실어 나르'고 있으므로, ㉡에는 도적들이 재물을 실어 나른 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9. 배경의 기능 파악(정답: ③)

성 안에 있는 율도국 왕에게 길동은 '격서'를 보내 투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는 문서를 통해 외부 세력인 활빈당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곳이다. 반면 ⓐ는 길동과 도적들이 재물을 탈취한 곳일 뿐, 문서를 통해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곳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길동과 도적들의 표적이 된 곳이므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는 율도국의 왕이 사는 곳으로, 길동이 '율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는 길동과 도적들의 습격을 받은 이후, 관군이 지원하기 위해 향하고 있는 곳이므로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곳이다. 한편 ⓑ는 '적병'을 막기 위해 율도국 왕이 '군사를 징발하여 친히 대적'하는 곳일 뿐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곳이 아니다.
④ ⓐ는 길동과 도적들이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 습격한 곳일 뿐, 길동이 '해인사'라는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한편 ⓑ는 율도국의 '칠십여 성'을 점령한 길동이 율도국 왕의 항복을 받기 위해 이른 곳이므로, 외부 세력인 활빈당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는 '노승'을 포함한 '승려들'이 지내는 곳이다. 이때 '승려들'이 '상하노소 없이 다 절 뒤 시내에 벌여 앉'았다는 것과 그러한 상황에서도 '절의 나무하던 놈'은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싣'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의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는 왕과 문무제신 등의 위계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④)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에서 '속이는 방법'은 '속이는 이'가 '속는 이'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윗글에서 길동은 관군에게 도적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에는 상대를 '속이는 의도'가 포함된다. 윗글에서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인 '마을'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

은, 관군을 '속이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②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에서 '속이는 방법'은 '속이는 이'가 '속는 이'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윗글에서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서 관군을 향해 소리친 것은 길동이 관군에게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한 것이므로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③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에서 '속이는 방법'은 '속이는 이'가 '속는 이'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윗글에서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길동이 관군에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속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에서 '속인 결과'는 '속이는 의도'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윗글에서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과 재물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른 것은 길동의 의도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속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⑤)

<보기>에 따르면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윗글에서 율도국 왕은 길동을 '무명 소적'이라고 부르며 길동을 '방자'한 이로 여기지만, '문무제신'은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할 것을 우려하며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율도국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며 진격한 길동의 기세로 인해 '문무제신'이 두려움을 품었음을 암시할 뿐,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율도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홍길동전」은 이본에 따라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윗글에서 길동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율도국 정벌을 단행하는 것은, 주인공이 율도국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침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는 경향의 「홍길동전」 이본에서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으로 제시된다. 윗글에서 길동이 정벌에 대한 여러 군사들의 뜻을 묻자 장수들이 '평생 소원'이라 응하는 것은, 율도국의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는 경향의 「홍길동전」 이본에서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한다. 윗글에서 길동이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며 '성탕'과 '무왕'의 일을 인용하는 것은, 역사 속 임금들의 정벌 사례를 자신의 율도국 정벌과 비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주인공이 내세운 정벌의 명분이 역사적 사례와 동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는 경향의 「홍길동전」 이본에서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한다. 윗글에서 길동이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내용의 격서를 보낸 것은, 길동의 율도국 정벌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 34] (고전 시가)

(가)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연계: 수능특강 문학 48쪽)

(나) 김수장, 「시름을 꺼내 들어~」(비연계)

(다) 이정보,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연계: 수능특강 문학 55쪽)

32. 작품의 내용 파악(정답: ⑤)

[A]에서 화자는 '얼음 위에 댓잎 자리'에서 자신과 임이 '얼어 죽'을지라도 임과 '정 둔 오늘 밤'을 함께할 수만 있다면 만족한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B]에서 화자는 '소춘풍'하며 봄을 즐기는 '도화'와 달리 임의 부재로 인해 '경경 고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봄을 맞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얼음 위에 댓잎 자리'처럼 '임과 나'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열악한 공간일지라도 그곳에서 임과의 사랑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을 뿐,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

을 제시하거나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지 않았다.
② [B]에서 화자는 '서창'을 열고 '경경 고침상'에서 쓸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과 달리 '시름없'이 봄을 즐기는 '도화'를 보며 외로워하고 있을 뿐, 창문을 매개로 자신의 속마음을 임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③ [C]에서 화자는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고자 했는데 이를 '어기신 이'가 누구냐며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변함없는 사랑을 강요한 자신에 대해 자책하지 않았다.
④ [A]에서 화자는 '얼음 위에 댓잎 자리'일지라도 임과 '정 둔 오늘 밤'을 '더디'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지 않았다. 한편 [C]에서 화자는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고자 했는데 이를 '어기신 이'가 누구냐며 임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데 따른 원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지 않았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정답: ⑤)

(나)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푸른 강물'을 '자연히' 떠다니다가 '절로 삭'게 될 '시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는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인 '꺼내 들어 얽어매고 둘러 묶어'를 통해 '시름'을 '푸른 강물'에 띄워 두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연속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색채 표현인 '푸른'을 통해 '시름'을 '띄워' 둘 '강물'이라는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③ (나)는 음성 상징어인 '풍덩'을 통해 '얽어 매고 둘러 묶'어 '강물'에 '들입다 띄'워 둘 '시름'의 무게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④ (나)는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띄워 두면'을 통해 '시름'을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 '푸른 강물' 위에 '띄워' 둘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려 냄으로써 이를 화자와 분리된 상태에 놓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④)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기도 하는데, 여기에 특정한 상황을 추가하여 자신의 처지를 강조한다. (가)에서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시름없'이 봄을 즐기는 '도화'와 달리 화자는 임의 부재로 인해 '경경 고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해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따라서 이는 화자와 임이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납거미'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월 칡넝쿨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 화자가 이를 '나비'와 '납거미'의 모습에 빗대어 임과 하나로 결속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부각하는 것일 뿐,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한다.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변화시켜서라도 임과의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 준다.
②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한다. (나)에서 시적 대상인 '시름'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다.
③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기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덧붙여 자신의 처지를 강조한다. (다)에서 '칡넝쿨'을 '삼사월'의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의 '칡넝쿨'이 지닌 왕성한 생명력을 환기함으로써 '칡넝쿨'에 대한 정보를 부연하여 임과 결속하고자 하는 화자 자신의 소망을 강조한다.
⑤ <보기>에 따르면 (나)와 (다)는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추상적인 감정인 '시름'을 '푸른 강물'에 '이리저리 떠다니다' 사라질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 '나'가 '칡'이 되어 '임'과 계속 '감'겨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임'과 '나'가 각각 '오리나무'와 '칡넝쿨'로 모습을 바꾼다는 설정을 통해 '임'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해설

[35 ~ 37] (화법) 「초」

35. 말하기 전략 평가(정답: ⑤)

발표자가 청중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문단에서 '불후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라고 질문한 것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청중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2문단에서 화촉이 '매우 귀해 혼례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며 '현재에도 '화촉을 밝히다'라고 하면 결혼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용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3문단에서 '불후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뒤 '불후리가 촛불의 뒤에 있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라며 청중의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2문단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초는 밀랍이나 기름을 특정한 형태로 굳혀 만든 것'이라며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의 설명을 활용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4문단에서 조족등이 '한자로 '비추다'를 뜻하는 '조', '발'을 뜻하는 '족''이 쓰였다고 설명한 뒤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조','족', '등' 즉, '발을 비추는 등'이라는 뜻'이라고 언급하여 발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36. 매체 자료 활용의 적절성(정답: ③)

[자료 2]는 조족등이 대상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 기울어질 때에도 내부의 초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발표자는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조족등 내부에는 반원형의 고리 회전축이 있어, 조족등이 발밑을 비추든 앞을 비추든 초가 똑바로 서 있게' 된다며 조족등의 초가 기울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은 뒤쪽에 불후리가 달려 있는 촛대를 나타낸 그림으로, 발표자는 ㉠에서 이를 활용하여 '촛대 중에는 이렇게 뒤쪽에 금속판이 달려 있는 것이 있었'으며 '이 금속판을 '불후리'라고' 한다고 설명한 뒤 '불후리는 불빛을 반사해 주변을 더 밝게 비추는 기능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촛불의 빛이 불후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자료 2]는 조족등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발표자는 ㉡에서 이를 활용하여 조족등이 '모양이 둥근 박과 같다 해서 '박등'이라고도 불렸'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조족등이라는 이름이 형태에서 유래했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발표자가 조족등이 '한자로 '비추다'를 뜻하는'조', '발'을 뜻하는'족''이라고 설명한 것은 '발을 비추는 등'이라는 조족등의 이름이 지닌 뜻을 설명한 것이지 조족등이라는 이름이 형태에서 유래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자료 3]은 청사초롱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발표자는 ㉣에서 이를 활용하여 초롱이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철이나 나무 골격에 종이나 비단을 감싸 만든 기구'이며 '그중 붉은색과 푸른색의 천으로 싼 것이 청사초롱'이라며 바람에 취약한 촛불의 단점을 해결한 것이 청사초롱임을 언급하고 있을 뿐, 바람에 취약한 초롱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자료 3]은 청사초롱이 혼례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발표자는 ㉤에서 이를 활용하여 청사초롱이 '전통 혼례에서도 사용되었'다며 '붉은색은 양을 상징하여 신랑을, 푸른색은 음을 상징하여 신부를 의미'한다며 청사초롱의 두 가지 색이 상징하는 바를 언급하고 있을 뿐, 청사초롱이 혼례에서 사용자에 따라 색이 다르게 사용되었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37. 말하기 계획 평가(정답: ⑤)

발표자는 5문단에서 청사초롱이 '전통 혼례에서도 사용되었'다며 '붉은색은 양을 상징하여 신랑을, 푸른색은 음을 상징하여 신부를 의미'하고 '새 출발을 하는 부부가 조화롭게 결합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상징이었'다며 청사초롱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초롱이 쓰이는 상황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기 위해 일화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청중들에게 발표자와 공유하는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민속 박물관 체험 학습에서 본 옛 물건 중에 무엇이 기억나나요?'라고 체험 학습에서 민속

박물관을 방문했던 경험을 발표 초반에 환기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생활과 관련 있는 소재를 언급하여 청중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요즘은 초를 생일과 같이 특별한 날에 주로 사용'한다며 초가 언제 쓰이는지 알려 주기 위해 생일에 초가 사용됨을 언급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2문단에서 초의 재료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초가 '밀랍이나 기름을 특정한 형태로 굳혀 만든 것'이며 '밀랍은 벌집 재료 중 하나로, 밀랍으로만 만든 초는 서민들은 평소에 쉽게 쓸 수 없었다'고 언급하여 과거에는 특정 재료의 초가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5문단에서 청중이 옛 물건이 쓰이던 상황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사초롱이 '전통 혼례에서도 사용되었'다며 '붉은색은 양을 상징하여 신랑을, 푸른색은 음을 상징하여 신부를 의미'하고 '새 출발을 하는 부부가 조화롭게 결합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상징'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쓰이던 청사초롱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8 ~ 42] (화법+작문) 「의도적 방치 구역」

38. 대화 내용 이해(정답: ③)

(가)의 '학생 1'은 우리 지역 공원에 의도적 방치 구역을 조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학생 3'의 발화를 듣고 ㉢에서 '동의해.'라며 의견에 동의한 뒤, '그러면 공간을 방치만 하면 되는 거야?'라며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묻고 있을 뿐, 직전 발화 내용을 정리한 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에서 '지난 시간에는 녹지 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라며 지난 시간에 결정된 내용을 확인한 뒤, '오늘은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라며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학생 2'는 '공원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의도적 방치 구역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언급하였다. 이에 '학생 3'은 ㉡에서 '의도적 방치가 가능한 거야?'라며 직전 발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뒤,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라며 궁금한 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④ '학생 3'은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 '학생 2'의 발화를 듣고 '다시 말하면 토착 식물을 심고, 그 공간에 사람 출입을 제한하는 거네.'라며 직전 발화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한 뒤, '이 내용을 써서 공모전에 제안하자.'하며 담화 참여자들에게 행동을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써서 공모전에 제안하자는 '학생 3'의 발화를 듣고 '그래 좋아.'라며 동의한 뒤, '그런데 이 공모 아이디어를 제안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39. 대화 전략의 적절성(정답: ③)

'학생 1'은 '전문가'에게 '해외에서 의도적 방치로 생태계가 회복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라며 의도적 방치로 생태계가 회복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전문가'는 '해외에서 의도적 방치로 생태계가 회복된 곳'을 묻는 '학생 1'의 발화를 듣고, "◇◇나무'를 심은 구역을 방치함으로써 자연의 자생적 생태 과정을 활성화'하여 생태계를 복원한 영국의 사례를 언급한 뒤, '더 궁금한 거 있나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묻고 있을 뿐, 인터뷰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내용을 되묻고 있지는 않다.
② '전문가'는 '의도적 방치 구역임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를 묻는 '학생 3'의 발화를 듣고, '방치가 의도된 것임을 알려 주는 '돌봄의 신호'를 보여 줄 필요가 있'으며, '그 구역의 의미를 알리는 표지판이 '돌봄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 개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답변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 3'은 더 궁금한 것이 있는지 묻는 '전문가'의 발화를 듣고 '의도적 방치 구역임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묻고 있을 뿐, 찬반 관점 모두를 포함해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⑤ '학생 2'는 '의도적 방치로 생태계가 회복된' 해외의 사례를 묻고 있을 뿐,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생 3'은 '의도적 방치 구역임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묻고 있을 뿐,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40. 글쓰기 내용 생성(정답: ③)

(가)의 '학생 3'은 네 번째 발화에서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원의 일부라도 자연에게 내어 준다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1'은 ⓒ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메모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4문단에서는 '방치된 구역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줄어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그 구역의 생태계 순환이 안정되면 의도적 방치를 통해 조성된 구역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예상되는 불편함이 제안 내용의 실현으로 해소된다는 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학생 2'는 (가)의 세 번째 발화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니 녹지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1'은 ⓐ에 '녹지 공원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은?'이라는 메모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2문단에서는 '의도적 방치 구역이 만들어지면' '인공물 설치, 잡초 제거와 같은 조경 작업 등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된다며 제안 내용의 경제적 장점을 제시하였다.

② '학생 3'은 (가)의 세 번째 발화에서 의도적 방치 구역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한 비슷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1'은 ⓑ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 → △△섬 말고 어디지?'라는 메모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3문단에서는 '인근 ☆☆시에서도 이를 적용해 녹지 공원을 만들고 생태계 복원에 성공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시도 녹지 공원 내에 의도적 방치 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며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④ '학생 2'는 (가)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처음에는 대대로 우리 땅에서 자라온 토착 식물을 심'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1'은 ⓓ에 '토착 식물이 필요함. → 왜 하필 토착 식물?'이라는 메모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4문단에서는 '우선 공원 내에 적합한 구역을 지정하고 토착 식물을 심어야' 하며, 그 이유로 '토착 식물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종의 정착을 막는 기능'이 있다며 제안 내용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요소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⑤ '학생 2'는 (가)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해 해당 구역을 보호'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1'은 ⓔ에 '출입 제한도 해야지. → 어떻게 제한할까?'라는 메모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4문단에서는 '구역을 울타리로 둘러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원 방문객에게 해당 공간이 마련된 이유를 안내하는 출입 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며 제안 내용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41. 글쓰기 내용 조직(정답: ⑤)

(나)의 2문단에서는 '의도적 방치 구역 조성이 가져오는 이점'을 설명하며 '제초제의 사용이 감소하게 되어서'라는 원인으로 인해 '화학 물질로 인한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도 줄어드는 부가적 효과도 있다'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3문단에서 '○○시에서는 △△섬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습지 생태계를 회복하고 철새가 돌아오게 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습지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공간별로 나누어 묘사하지는 않았다.

② (나)의 1문단에서 녹지 공원에 '인간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동식물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녹지 공간과 습지 구역의 실제 분포 현황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식생이 풍성해짐으로써 토양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식생이 풍성해져서 자연재해가 예방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일 뿐, 자연재해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④ (나)의 1문단에서 '도시의 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묻고 답하는 문답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2.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정답: ④)

(나)의 5문단에서는 제안의 효과로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점과 '시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다. 반면, 고쳐 쓴 문단에서는 '의도적 방치 구역의 풍부한 생태계가 주변 숲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숲과 숲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내용을 더해 생태계 구역이 넓어진다는 내용을 보충하였고, '자연스럽게 조성된 생태계를 관찰하는' 교육의 장으로 의도적 방치 구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충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보충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조언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의 5문단에서는 '저희 제안이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라는 도입 문장이 이미 존재하며, 고쳐 쓴 문단에서도 이 문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문단의 목적을 드러내는 도입 문장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5문단에 언급된 기대 효과는 의도적 방치 구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쳐 쓴 문장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을 밝히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5문단에서도 이미 '시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혜택을 누리는 대상인 시민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5문단에서 이미 '의도적 방치 구역이 안정화되면서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 넓어질 것'이라며 안정화가 가져올 효과를 밝히고 있으므로, 효과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고쳐 쓴 글에 추가된 내용은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충한 것일 뿐,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밝힌 것이 아니므로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43 ~ 45] (작문)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43. 글쓰기 내용 생성(정답: ②)

[초고]의 2문단에서는 동력집중식 고속열차가 '동력 장치가 열차의 맨 앞과 뒤에 위치한 동력차에 집중'되어 있어 '승객이 탑승하는 객차에 동력 장치가 없어 소음과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무거운 동력차가 동력이 없는 다수의 객차를 움직여야 하다 보니 가속 능력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고, 선로 손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의 장단점을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초고]의 2문단에서는 '무거운 동력차가 동력이 없는 다수의 객차를 움직여야 하다 보니 가속 능력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고, 선로 손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이 동력분산식'이라고 언급하여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력집중식 고속열차가 화제가 된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초고]의 3문단에서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객차 밑바닥에 동력 장치를 분산·배치하여 가속 능력을 높인 방식'이라고 언급하였을 뿐,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동력 장치를 종류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초고]의 5문단에서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객실 바로 아래에 동력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구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승객에게 전해져 승객들의 불편함이 컸다'며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 동력분산식의 단점을 줄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을 뿐,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초고]의 4문단에서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전체 열차 중량이 각 객차에 고르게 분산되어 선로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동일 편성 기준으로 좌석 수도 많아져 운송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열차 중량의 분산으로 인해 동력이 집중되던 객차의 중량 감소에 대한 이점을 언급하였을 뿐,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중량 감소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4. 내용 생성의 적절성(정답: ①)

첫째 문장에서 '동력분산식으로의 변화는 철도 기술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속열차 구동 기술 변화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둘째 문장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고속열차 신기술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라며 기술에 대한 관심을 권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첫째 문장에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대동맥처럼 국토를 연결하고 있다.'라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였으나, 고속열차 구동 변화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둘째 문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철도 공학 기술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표준

으로 자리 잡길 희망한다.'라며 기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였을 뿐, 기술에 대한 관심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③ 첫째 문장에서 '동력분산식으로의 변화는 우리나라 고속열차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속열차 구동 기술 변화의 의의를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를 애용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라며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을 뿐, 기술에 대한 관심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④ 첫째 문장에서 '동력분산식으로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 놓았다.'라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속열차 구동 기술 변화의 의의에 대해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 '경제적 효과가 큰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이용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며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을 뿐, 기술에 대한 관심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⑤ 둘째 문장에서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고속열차 신기술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라며 기술에 대한 관심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문장에서 '열차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에 이르기까지 속도와 효율을 추구하며 발전하였다.'라며 고속열차 구동 기술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속열차 구동 기술 변화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45. 자료 수집 및 활용의 적절성(정답: ④)

[초고]의 4문단에서는 '고속열차의 운영 면에서도 동력분산식이 지닌 장점은 분명하다'며 '전체 열차 중량이 각 객차에 고르게 분산되어 선로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동일 편성 기준으로 좌석 수도 많아져 운송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ㄱ-2에 제시된 '고속열차 구동 방식별 제원 비교'의 표에 따르면 동력집중식의 좌석 수는 379석인 반면 동력분산식의 좌석 수는 515석으로 제시되어 있어 동력분산식의 좌석 수가 동력집중식의 좌석 수보다 136석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ㄴ에 제시된 '신문 기사'에는 '고속열차 ○○에 동력분산식을 적용하고 운전실 객차에 좌석을 배치하여 좌석 수를 늘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운전실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4문단에서는 동일 편성 기준의 경우 좌석 수 증가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편성 증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운전실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는 내용을 편성 증가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다는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초고]의 1문단에는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새로운 구동 기술을 적용한 고속열차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ㄱ-1에 제시된 '고속열차 이용객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고속열차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1문단에 고속열차 이용객의 증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고속열차 이용객 수를 보강할 수 있다.

② [초고]의 5문단에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객실 바로 아래에 동력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구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승객에게 전해져 승객들의 불편함이 컸다'며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 동력분산식의 단점을 줄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ㄴ에 제시된 '신문 기사'에 따르면 '고속열차○○은 객실 바닥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바닥 패널이 바닥에서 떠 있는 형태)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줄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5문단에 동력분산식의 단점인 소음과 진동을 줄인 기술의 예시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 기술을 적용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초고]의 2문단에서는 '초기에 도입된 고속열차들에는 동력 장치가 없'어 '동력 집중식을 적용'했으나 '무거운 동력차가 동력이 없는 다수의 객차를 움직여야 하다 보니 가속 능력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고, 선로 손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ㄷ에 제시된 '△△학술지 논문'에는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며 동력분산식이 '최대 축중이 무거운 동력집중식과 비교할 때,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는 최대 축중이 무거워 열차 주행 중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를

2문단에 선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보강할 수 있다.

⑤ [초고]의 3문단에서는 2문단에서 '가속 능력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다는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방식과 장점에 대해 '동력 분산식은 객차 밑바닥에 동력 장치를 분산·배치하여 가속 능력을 높인 방식으로, 이는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ㄱ-2의 '고속열차 구동 방식별 제원 비교'의 표에 따르면, 동력집중식의 가속 성능은 316초인 반면 동력분산식은 212초로 제시되어 있다. 또 ㄷ의 '△△학술지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역간 거리가 짧아 정차 횟수가 많은 철도 노선 운영에는 고속열차의 가속 성능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정차 횟수가 많을 때 동력분산식의 가속 성능이 동력집중식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3문단에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 동력분산식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로 보강할 수 있다.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해설

[35 ~ 39] (언어)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82, 95, 96쪽)

35. 변이음의 상보적 분포, 형태소의 이형태, 자동적·비자동적 교체(정답: ②)

1문단에서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했으므로,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우리는 [k]와 [g]를 하나의 음운 'ㄱ'로 인식한다.'라고 했으므로, '가구'의 두 'ㄱ'는 하나의 동일한 음운이라는 이해는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라고 했으므로,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며'라고 했으므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뉜다.'라고 했으므로, 교체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이해는 적절하다.

36. 변이음의 상보적 분포와 자동적·비자동적 교체(정답: ③)

1문단에서 "공'과 '콩'의 소리를 듣고 두 단어의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두에서 실현되는 'ㄱ'와 'ㅋ'가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 한다.'라고 했으므로, ㉡의 '더위'와 ㉢의 '거위'에서 'ㄷ'와 'ㄱ'는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음운이다. 또 2문단에서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형태라 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라고 했으므로, ㉢의 '먹'과 '멍'은 형태가 다른 이형태이지만 '먹다'라는 의미는 같다. 즉, ㉡의 '더위'와 ㉢의 '거위'에서 'ㄷ'와 'ㄱ'는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고, ㉢의 '먹'과 '멍'은 형태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파열음 'ㅂ, ㄷ, ㄱ'는 어두에서는 무성음 [p, t, k]로 실현된다. 반면 모음과 모음 사이, 비음 'ㅁ, ㄴ, ㅇ'과 모음 사이, 유음 'ㄹ'와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 [b, d, g]로 실현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의 '후보'의 [ㅂ]는 모음과 모음 사이이므로 유성음으로 실현되고, ㉠ '바지'의 [ㅂ]는 어두이므로 무성음으로 실현되며, ㉡ '온도'의 [ㄷ]와 ㉢ '인고'의 [ㄱ]는 비음과 모음 사이이므로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즉 ㉠의 '후보'의 [ㅂ]와 달리, ㉠ '바지'의 [ㅂ], ㉡ '온도'의 [ㄷ], ㉢ '인고'의 [ㄱ]는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옷'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옷+이[오시]', '옷+도[옫또]', '옷+만[온만]'처럼 '옷'의 소리가 [옷], [옫], [온]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형태라 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의 '잡+아[자바], 잡+는[잠는], 잡+고[잡꼬]'에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 '잡'과 '잠'은 서로 다른 형태소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자음 'ㅂ, ㄷ, ㄱ'가 'ㅁ, 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될 때 [구버]가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 'ㅂ'와 모음

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다'의 '굽-'이 동일한 환경에서 [구워]의 '구우'로 교체되는 것은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라고 했다. ㉡에서 [단는]의 '단', [든는]의 '든'은 비음화의 결과이므로 자동적 교체이지만, [드러]의 '들'은 'ㄷ'와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로 교체되는 것이므로 비자동적 교체이다. 그러므로 ㉡에서 [단는]의 '단', [드러]의 '들', [든는]의 '든'은 모두, 자동적 교체의 결과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 [추운]의 '추우'는 'ㅂ' 불규칙 활용형이므로 비자동적 교체이지만, ㉢의 [멍는]의 '멍'은 비음화의 결과이므로 자동적 교체이다. 그러므로 ㉢의 [멍는]의 '멍', ㉠의 [추운]의 '추우'는 모두,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62, 68, 72, 77, 104, 109, 230쪽)

37. 문장 구조 분석과 시간 표현(정답: ②)

㉡(건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에서는 '아주 새'라는 표현에서 부사어인 '아주'가 관형어인 '새'를 꾸며 주고 있지만,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에서는 '곧장'이라는 부사어가 본용언 '가'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이라는 분석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에서는 '붉은 노을빛'이라는 표현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고, ㉡(건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에서는 '건실한 회사'라는 표현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이라는 분석 결과는 적절하다.

③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에서는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을 사용하여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고,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에서는 대등적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으므로,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이라는 분석 결과는 적절하다.

④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에서는 '물들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고,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에서는 '익어 가고'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이라는 분석 결과는 적절하다.

⑤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에서는 '노을빛으로'가 필수적 부사어로 쓰였고, ㉡(건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에서는 '고객에게'가 필수적 부사어로 쓰였으며,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에서는 '봉사 활동에'와 '집에'가 필수적 부사어로 쓰였고,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에서는 '마당에는'이 필수적 부사어로 쓰였으므로,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는 적절하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36, 39, 71쪽)

38. 중세 국어 의문문의 종결 표현(정답: ④)

<자료>에서 '종결 어미 '-ㄴ다'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가 쓰였다.'라고 했다. ㉢ '그듸 엇던 사ᄅᆞ민다[그대 어떤 사람이냐?]'에는 '엇던'이라는 의문사가 사용되었으므로 이 문장은 설명 의문문이지만, 주어가 '그듸(그대)'로 나타난 2인칭 의문문이므로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종결 어미 '-ㄴ다'가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에서는 종결 어미 '-ㄴ다'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료>에서 ''누'…등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에서는 … 체언 바로 뒤에는 보조사 '고'가 결합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 '네 스승이 누고[네 스승이 누구인가?]'에서는 보조사 '고'가 체언 '누(누구)'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② <자료>에서 ''누'…등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에서는 … 체언 바로 뒤에는 보조사 '고'가 결합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 '네 스승이 누고[네 스승이 누구인가?]'에서는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누구)'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③ <자료>에서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

녀’와 보조사 ‘가’가 사용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 ‘阿難ᄋᆡ 마리 외디 아니ᄒᆞ녀[아난의 말이 그르지 아니하느냐?]’에서는 종결 어미 ‘-녀’가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⑤ <자료>에서 ‘종결 어미 ‘-ㄴ다’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가 쓰였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 ‘그듸 엇던 사ᄅᆞᆷ민다[그대 어떤 사람이냐?]’에서는 종결 어미 ‘-ㄴ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에 사용되었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20쪽)

39. 복합어의 직접 구성 요소(정답: ①)

ⓐ의 ‘놀이마당’을 의미를 고려하여 둘로 나누면 ‘놀이’와 ‘마당’인데, ‘마당’은 단일어이지만 ‘놀이’는 동사 ‘놀다’의 어근 ‘놀-’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파생어에 단일어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파생 후 합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는 ‘놀이’와 ‘마당’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의 ‘콩나물국’을 의미를 고려하여 둘로 나누면 ‘콩나물’과 ‘국’인데, ‘국’은 단일어이지만 ‘콩나물’은 명사 ‘콩’과 명사 ‘나물’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합성어에 단일어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합성 후 합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는 ‘콩나물’과 ‘국’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거짓말투성이’를 의미를 고려하여 둘로 나누면 ‘거짓말’과 ‘-투성이’인데, ‘-투성이’는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물,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지만 ‘거짓말’은 명사 ‘거짓’과 명사 ‘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합성어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된 ㉢(합성 후 파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는 ‘거짓말’과 ‘-투성이’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의 ‘헛소리꾼’을 의미를 고려하여 둘로 나누면 ‘헛소리’와 ‘-꾼’인데, ‘-꾼’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지만 ‘헛소리’는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과 명사 ‘소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파생어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된 ㉡(파생 후 파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는 ‘헛-’과 ‘소리꾼’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 ‘웃음꽃’을 의미를 고려하여 둘로 나누면 ‘웃음’과 ‘꽃’인데, ‘꽃’은 단일어이지만 ‘웃음’은 동사 ‘웃다’의 어근 ‘웃-’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파생어에 단일어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파생 후 합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는 ‘웃음’과 ‘꽃’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0 ~ 43] (매체) 기상 관측 장비

40. 의사소통 방식(정답: ⑤)

(가)에서 진행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정규 방송을 마칠 시간이라 세계 기상 통신망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에서 이어 갈까 하는데, 교수님 괜찮으실까요?’라고 요청하고 있고, 전문가는 ‘네, 그럼요.’라고 동의하고 있으므로,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진행자는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는 중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청취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② (가)에서 전문가는 ‘기상 항공기에 사람은 몇 명이나 탈 수 있나요?’라는 청취자 민트초코의 질문에 ‘국내 도입 기종은 5명이 탑승할 수 있고’라고 답변하며 이어서 ‘약 6시간 비행 가능합니다’라고 청취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하고 있다.

③ (가)에서 진행자는 양손으로 둥근 모양을 만든 전문가의 손동작을 ‘지금 교수님께서 손으로 공 모양을 만드셨는데’라고 말로 설명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가)에서 진행자는 수집된 자료에 관한 댓글들인 둥이맘과 햇살가득의 댓글들을 바탕으로 ‘관측 장비가 많으니 자료 양도 많을 터인데,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라고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있다.

41.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정답: ④)

‘별님달님’은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인 ‘해양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여, ‘바다는 어떤 장비로 관측하는지 궁금해 도서관에서 찾아보려고요.’라고 언급함으로써, 관측 장비와 관련한 정보 탐색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정과’는 진행자가 도입부에서 언급한 방송의

주제인 '기상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장비'에 주목하여, '방송을 통해 기상 관측 장비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지 않다.

② '수정과'는 방송에서 제시한 기상 관측 장비의 명칭인 'AWS'와 '레윈존데'에 주목하여, '장비 이름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표현의 정확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③ '별님달님'은 지상에 위치한 관측 장비와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상공을 관측하는 장비들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주목하여, '지상뿐 아니라 상공에서도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향후 관측 장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있지 않다.

⑤ '봄날'은 방송에 언급된 기상 관측 위성인 '천리안2A호'에 주목하여, '천리안2A호는 어떤 종류의 위성인지 궁금하'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자신의 배경지식과 방송 내용의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42. 계획 반영의 적절성(정답: ③)

(가)에서 전문가가 소개한 관측 장비 'AWS', '기상 항공기', '레윈존데', '천리안2A호'를, (나)에서 관측 위치를 기준으로 배열한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측 주기를 기준으로 배열한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겠다는 ③의 계획은 반영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전문가가 '라디오 방송이라 보여 드릴 수가 없'다고 한 기상 항공기 소개 영상을, (나)의 '1. 정규 방송의 내용'에서 '[참고] 기상 항공기 소개 동영상'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 진행자가 정규 방송을 마칠 시간이라 온라인 방송으로 다루기로 언급한 세계 기상 통신망에 대한 내용을, (나)에서 '1. 정규 방송의 내용'에 이어서 '2. 온라인 방송의 내용 - 세계 기상 통신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 제시한 분석 장비인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을, (나)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관련 정보 바로 가기'의 하이퍼링크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전문가가 관측 장비 'AWS', '기상 항공기', '레윈존데', '천리안2A호'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 '1. 정규 방송의 내용'의 '◦ 관측 장비 한눈에 보기' 설명에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43. 매체의 언어적 특성(정답: ⑤)

ⓒ에서는 지시 대명사 '이'를 사용하여, 전문가가 앞서 말한 자료를 가리키고 있을 뿐, 자료 분석에 활용되는 슈퍼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연결 어미 '-려'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기상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는 종결 어미 '-지'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기상 정보를 수집하려면 관측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③ ⓒ에서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탑승 가능한 인원에 대해 질문한 주체인 민트초코를 높이고 있다.

④ ⓓ에서는 의존 명사 '터'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관측 장비가 많으니 자료 양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44 ~ 45] (매체) 세계 기록 유산

44. 매체 활용 방식(정답: ⑤)

'고은'은 '이진'에게 '네가 나한테 출력해 준 자료 보는 중인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말하며, 자료를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모두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찬'은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있을 뿐, 모두에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② '대훈'은 회의록을 보내 준 '은찬'에게 귓속말 기능을 활용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을 뿐, 일정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③ '대훈'은 유네스코 누리집을 모두에게 보여 주기 위해 화면을 공유하고 있을 뿐, 관련 누리집 주소를 채팅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④ '대훈'은 음성 언어로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몸짓으로 자신이 의견을 이미 남겼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지 않다.

45. 생산된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정답: ②)

(나)에서는 '기록 유산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영상에 드러나면 좋겠'다는 '고은'의 의견을 반영해, 기록 유산이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기 쉽다는 것을 시각화한 장면을 구성했을 뿐, 기록 유산의

역사적 의의를 시각화한 장면을 구성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기록 유산은 인류의 지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니, '이 내용을 보여 주자.'라는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여러 시대의 인물의 손을 잡은 장면을 구성했다.

③ (나)에서는 '기준이 여러 개면 주요 기준을 강조해서 보여 주는 게 좋겠'다는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주요 기준인 '진정성', '독창성', '세계적 중요성'이 적힌 원들을 보조 기준인 '희귀성', '완전성', '위험성'이 적힌 원들보다 크게 제시한 장면을 구성했다.

④ (나)에서는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 유산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네. 아시아에서 제일 많대. 이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작하자.'라는 '은찬'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민국 1위, 중국 2위, 인도네시아 3위의 순위가 적힌 시상대가 포함된 장면을 구성했다.

⑤ (나)에서는 '영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도록 편집하면 좋겠'다는 '고은'의 의견을 반영해, 영화의 끝맺음자막처럼 '기록 유산,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기억'이라는 자막이 올라가는 장면을 구성했다.